

##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지역적 특성

조우현<sup>+</sup> · 이호정\*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sup>+</sup>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 The Characteristics of Croatia Folk Costumes by Regional Groups

Woo-Hyun Cho<sup>+</sup> · Ho-Jung Le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M.A.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6. 10. 19. 접수; 11. 17 채택)

#### Abstract

This study contemplates Croatian traditional costumes with focus on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on with neighbor countries as a member of old Yugoslavian Union. Therefore, it contains the information from field works based on Croatian language, native costumes and folk materials widely. Men usually wear wide linen pants (gaće), shirt (košulje, rubina), vest (lajbek), hat and jacket (krožet). Also they sometimes wear scarves or aprons. Women put on blouse, long skirt, apron, headgear with various decoration and scarf (peča), shawl (tibetui robe) or necklace together. Croatian folk dresses fall into three different styles by provinces, such as Pannonia, Dinar and Adria, according to the basic environmental and racial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e. People of Pannonia plain generally wear white linen clothing and often use flounce and lace, which are influenced by Serbia and Hungary. In the Dinar mountain province, aprons with tassel, knitted vests made of leather and fur are very popular. The clothing of Dinar province has much commonness with those of Bosnia - Herzegovina and Montenegro which have metal buttons and belts. And the clothing of Adria coast is influenced by Italy a lot. There are many splendid silk clothes in its folk dress code.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a lot of foreign influences in Croatian history. Although there were severe cultural invasions in many times through its history, Croatians didn't just surrender to these cultural influences. People in Croatia comply with these new coming culture and reconcile these into their own tradition and dress code in their own way.

**Key Words:** Pannonia Folk Costume(파노니아 민속복), Dinar Folk Costume(디나르 민속복),  
Adria Folk Costume(아드리아 민속복), Rubina(루비나), Rubača(루바차)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Woo-Hyun Cho  
Tel. +82-2-760-0518, Fax. +82-2-760-0514  
E-mail : whjoy@skku.edu

## I. 서 언

복식은 그것을 입는 민족들의 삶과 정신을 알 수 있는 바코드이다. 그리고 문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반드시 유동하며 타문화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sup>1)</sup>

역사적으로 동유럽 및 발칸유럽<sup>2)</sup>은 여러 민족의 활동무대였고 동·서 문화 교역의 통로였으며, 현재는 슬라브 민족이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민족으로 나뉘어 여러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탈냉전시대의 혹독한 경제와 정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체제전환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슬라브 민족 국가인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의 고찰로, 복식의 기본 형식과 구 유고연방의 일국으로서 주변국과의 문화접변에 따른 각 지역별 복식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아드리아 해의 보고인 크로아티아는 주변 민족의 침략과 교류가 빈번하였고, 로마가톨릭과 남슬라브 민족의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남슬라브 민족으로 구성된 크로아티아는 발칸 유럽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은 발칸지역의 슬라브 문화와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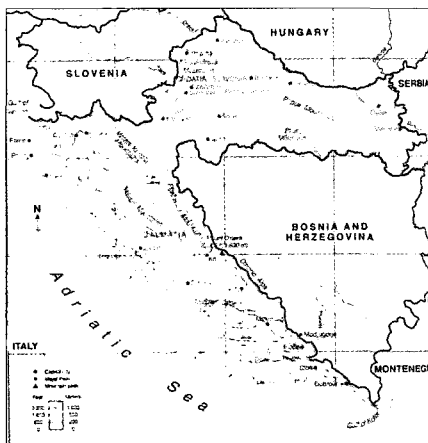
연구 내용은 첫째, 다양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의 형성배경을 살피고, 둘째,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의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이 정착하게 된 복합적인 요인을 고찰하여 본다. 셋째,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복식의 특징을 분류하고, 나아가 주변 국가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연구 자료로는 언어, 풍속, 민속, 회화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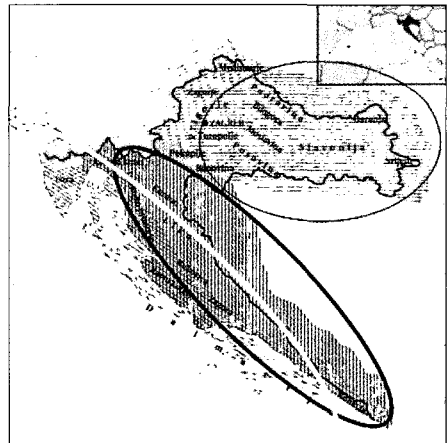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의 연구는 남슬라브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최근 패션 트렌드의 민속풍 디자인을 위한 소스로 또한 유럽의 남슬라브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문화 마케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 II. 크로아티아 민족복식의 형성 배경

발칸 유럽에 속하는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의 북동 해안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슬로베니아(Slovenia)와 헝가리(Hungary), 동으로는 세르비아(Serbi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와, 남으로는 길게 아드리아 해에 접하고 이탈리아를 마주보고 있다<그림1>. 지리적으로는 사바(Sava)강과 드라바(Drava)강 지역의 저지대, 카르스트(Karst)산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기후환경적의 특성으로 내륙지역은 온화한



<그림1> 크로아티아와 주변국가, CULTURES OF THE WORLD CROATIA, p.122



<그림2> 크로아티아의 지역 구분,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4

대륙성이며 해안은 지중해성 특성을 보인다.

종교는 가톨릭이 76.5%로 지배적이며 세르비아 정교, 이슬람교 등을 신봉한다.

크로아티아는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화와 접변하게 되는데 달마티아 해안을 따라 거주하던 선사인들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일리리아(Illyria)인에게 이를 계승하였다. 이후 고대 그리스 문화와 로마제국의 영향권에서 새로운 지역사회와 문화적 생활방식을 수용하게 된다. 기원 후 800년에 기독교 신앙의 도입에 따라 더욱 더 발전하게 된 크로아티아의 문화 예술은 매우 정교한 특징을 가진다. 비잔틴 양식을 거쳐 로마네스크 풍을 기틀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 크로아티아의 중세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북부는 중부유럽의 영향을, 남부는 지중해 지역과 이탈리아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15세기 초에 베니스의 아드리아 해를 통한 활발한 무역거래는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에 활발한 영향을 미쳐 베네치아 풍의 고딕 양식을 발달시켰다. 15-16세기 무렵에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북부지역에는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소개되었다. 17세기에는 성당의 건축이나 내부 장식에서 바로크 양식을 살펴볼 수 있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서유럽의 예술 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sup>3)</sup>

크로아티아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 중에서 이란 기원설이 일반적이다. 이 기원설과 관련된 근거 중 하나는 고대 이란과 마찬가지로 고대 크로아티아에서도 방향을 표시할 때 색깔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흰색은 서쪽, 빨강색은 남쪽, 파란색은 동쪽, 검은색은 북쪽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돈(Don)크로아티아 이후 크로아티아 민족의 분화를 기록한 역사서에 등장하는 백크로아티아, 적크로아티아, 청크로아티아 각각의 기원을 추론하고 있다<sup>4)</sup>.

이상과 같이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375년 훈족의 유럽침공으로 돈 강에 거주하던 크로아티아인들이 카르파티아(Carpathia)지역으로 이주하였고, 6세기 중반에 이주민의 일부는 유목 민족인 아바르(Avar)족에게 떠밀려 발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발칸지역으로 이동

한 이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던 슬라브인과 결합하게 되었고, 이러한 6-7세기의 민족이동을 통해 오늘날의 아드리아 지역까지 이동하게 된다. 새 거주지로 이주한 크로아티아인은 이미 선주한 타 슬라브인과 접하고 혈연적 결합을 통해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며 반도의 원주민인 일리리아인과도 민족적 결합하여 이 시기부터 슬라브크로아티아인의 역사가 전개된다.

크로아티아인은 이동지역에 따라 리카(Lika)강 유역과 산악 지역의 디나르 크로아티아인, 아드리아 해안 지역과 이스트리아(Istria)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드리아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산악 지역과 도나우(Donau)강, 드라바(Drava)강, 무르(Mur)강 유역의 파노니아 크로아티아인으로 나누게 된다<sup>5)</sup><그림2>. 이 결과 크로아티아의 민속복식은 세 지역으로 분류된 민족적 특징과 역사적, 환경적 변화들을 반영하면서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 III.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정착과정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인들과 슬라브인들은 각각의 전통복식을 착용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와 그들의 복식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부를 축적한 도시민들은 점차 전통의복을 경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반대로 농민들은 전통의복에 여전히 큰 가치를 두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친 ‘3월 혁명’은 일반 민중들이 귀족과 도시 엘리트들에 대하여 최고조의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크로아티아인의 독립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의 전통 의복은 크로아티아인에게 민족주의적 상징을 지닌 민속복식으로 승화되었다.

크로아티아 농민 의상이 민족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848년 혁명 시기이다. 1840년대 민족주의자들은 농민 의상을 통해 민족적 소속감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그림3〉 일상복,  
National Costumes of The Slavic Peoples, p.25



〈그림4〉 예복, Croatian  
National Costumes, p.54



〈그림5〉 작업복,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17

1848년의 혁명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자했던 결실을 맺게 된다. 이후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행사에 민속복식을 입기 시작했고, 일상복의 유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농노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촌의 대다수 민중들은 봉건 영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활동들은 소가족제의 형태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전 대가족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복들이 분업화된 사회 조직체에서 공동으로 생산되었던 것에 반하여, 변화된 가족 구성 하에서 여성 가족구성원들은 나머지 가족들의 의복을 전부 책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빈번한 접촉, 텍스타일 산업의 발전은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6)</sup>.

그 후 티토(Tito, Josip Broz)에 의해 민속복식은 국가주의와 민족 파벌주의의 해결방안으로 강화되었고, 이런 티토의 행적을 따라 투즈만(Tudjman, Franjo) 대통령<sup>8)</sup> 또한 민속복식 및 활동을 촉진하였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복·공예품과 같은 한 문화 안의 민속적인 요소들을 통해 전통을 보존하는 것 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민속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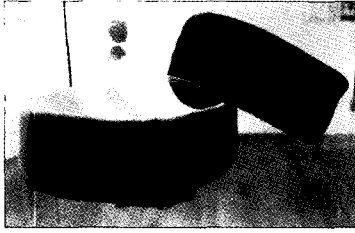
## IV.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기본형식

### 1.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기본 구조

한 민족의 전통 문화가 민족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층문화와 기층문화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민족 문화를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같이 외세 문화의 영향을 빈번하게 받은 국가의 상류층 의상은 항상 외세의 유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을 고유한 민족문화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10)</sup>. 따라서 민속복식의 연구는 농민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은 용도에 따라서 일상복<그림3>, 예복<그림4>, 작업복<그림5>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자복식은 일반적으로 파노니아 타입이다. 남자복식의 기본 구성은 팬츠(gaće, rajtozne, brageše), 셔츠(košulja), 베스트(lajbek), 모자<그림6>, 재킷(trlagan, kanparan koret), 울 또는 가죽으로 만든 벨트(pas, tkanica), 스카프 및 에이프런이다. 여자복식은 남자복식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자복식의 기본 형식은 루비나(rubina)로 불리는 린넨으로 만든 의복이다. 루비나는 동슬라브족인 우크라이나의 루바하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루비나는 블라우스 부분인 오프레짜크(oplečak)와 크릴라(krila)라고 불리는 에이프런으로 구성되어진다<sup>12)</sup>. 또한 블라우스(oplečak, košulja), 긴 스커트, 에이프런(skuti krila), 재킷과



<그림6> 아드리아 지방의 남자 headgear, (2005. 6, Split)



<그림7> 크로아티아 여자의복 일습, (2005. 6, Dubrovnik)



<그림8> 기혼여성의 headgear, Croatian National Costumes, p.51

다양한 장식의 머리쓰개(poculica)를 착용한다 <그림7>. 때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스카프(peča), 솔(tibetui robe), 목걸이(kolarde)등을 함께 착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민속복식은 착용자의 성별과 사회적 지위 등을 표시해주는데 크로아티아 민속복식 중 머리쓰개와 스카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머리쓰개류는 성별과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고 착용 방법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그림8>은 기혼여성의 머리쓰개의 모습이다.

민속복식은 한 국가 내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복식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더 자세하게 색상, 구조, 디테일, 착용법 등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지역적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각 복식의 종류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별 명칭의 차이는 방언으로 표현되는 것과 크로아티아의 기원시기부터 민족적인 분류와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크게 까이(Kaj), 슈또(što), 차(ča), 3개의 방언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추가적으로 고대 슬라브 모음 ě(jat)의 변이형에 따라 각각의 방언군은 다시 I-계열, je/fje-계열, e-계열 방언 군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언 구분은 크로아티아인의 어떤 부류의 슬라브인과 혼합되었는가에 따라 나누어진다<sup>13)</sup>. 다양한 용어 중에는 jankel(얀켈)과 같이 독일어, 이탈리아 어에서 기

원한 용어들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표1>은 각 지역별로 복식의 여러 가지 명칭을 정리한 것이다.

## 2. 소재와 색상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린넨이다. 그 외에 아마, 수직직물, 울, 실크 및 펠트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 각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들을 살펴보면 파노니아 지역은 린넨과 아마, 수직직물을 사용하였고, 디나르 지역에서는 린넨, 수직직물, 모피, 곰가죽, 울, 펠트 등 산악지역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나타난다. 아드리아 지역의 기본 소재는 수직직물과 울이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귀족들의 의상에서 실크로 된 의복들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재의 사용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세 지역의 생산수단과 경제생활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파노니아 지역은 평원을 중심으로 린넨, 아마 등 식물성 천연 소재들을 재배하여 사용하고, 디나르 지역은 산악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모피, 곰가죽과 같은 것을 의복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아드리아 지역은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하여 이를 통해 주변 국가로부터 실크 등의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에서 주로 사용된 색은 흰색, 검정색, 파란색과 빨간색이다. 이는 앞서 크로아티아 기원의 근거로 언급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빨간색은 슬라브 문화에서 최고의 색으로 그 상징적 의미는

&lt;표1&gt; 지역별 복식 명칭

복식 \ 지역	Panonia (파노니아)	Dinar (디나르)	Adria (아드리아)	
남자복식	팬츠(gaće)	nogavice(노가비세) gaćnice(가츠니체) gaćenice(가체니체) lače(라체-겨울용 바지) rajtozne(라이토즈네)	gaće(가체) lače(라체) breveneke(브레베네케)	gaće(가체) benevreke(베네브레케) brnav(브르나브)
	셔츠(rubača)	rubača(루바차) rubina(루비나)	košulje(코쭈라)	stomanje(스토마네)
	베스트(lajbek)	lajbek(라이백) prusljek(프루스레크) gumbeki(곰베키) kožuh(코쭈흐)	lajbek(라이백) lajbec(라이베쯔) čema(체마)	lajbek(라이백) lajbec(라이베쯔)
	재킷(krožet) 코트(srdoma)	surina(슈리나) surka(슈르카-재킷) srdoma(스르도마) srdoba(스르도바-코트) jankel(얀켈)	prsluk(프르스루크) zubun(주분) krožet(크로제트) Kožun(코쭈)	koporan(코포란) kaparen(코파렌) talagan(타라간) krožet(크로제트)
	벨트(tkanica)	tkanica(트카니짜)	pas(파스)	
	모자(kapa)	šubara(쑤바라) škrlak(슈크르라크)	kapa(카파)	pasovi(파소비)
	신발(opanci)	obojki(오보이키) nuče(누체)	opanci(오판찌)	kapica(카피카) pomidoric(포미도리쯔)
여자복식	셔츠(oplećak)	plećek(프레체크) opleće(오프레체) oplećak(오프레차크)	košulja(코쭈라)	stomanje(스토마네)
	베스트(lajbek)	lajbek(라이백)	krožet(크로제트)	
	스커트(rubina)	rubača(루바차) rubina(루비나) krila(크릴라)	kambrik(캄브리크-미혼) mrčine(므르취네-기혼) modrina(모드리나-기혼)	fuštan(푸쑤탄) mezulanke(메주란케) svilnice(스빌니체)
	재킷(rekljec) 코트(bekeš)	cabajka(짜바이카) aljica(아리이짜) zobun(조분) zebun(제분)	koporan(코포란) kaparen(카파렌)	bušt(부슈트) pano(파노) skerlet(스케르레트)
	에이프런(krila)	jabuke(야부케) krila(크릴라) fertun(페르툰)	opreg(오프레그) zaslan(자스란-소녀)	krila(크릴라) travesa(트라베사) traversa(트라베르사)
	머리쓰개(kapica)	poculica(포쭈리짜) kapica(카피짜)	kapica(카피짜) okrug(오크루가)	pokrivaca (포크리바짜)
	스카프(peča) 술(tibetni)	peča(페차) tibetni(티베트니)	debeli(데벨리)	rub(루브) peča(페차)
	악세서리	kolarde(콜라르데)	litar(리타르)	kanica(카니짜)



<그림9> 트카니짜(tkanica)의 색상, Croatian National Costumes, p.95



<그림10> 여자 재킷 소매부분 자수, Dress in Detail From around the world, p.67

다산과 풍요이고 파란색은 크로아티아의 해안을 상징한다. 흰색은 린넨, 아마와 같은 천연소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민속복식에서 많이 나타난다. 셔츠, 스커트, 바지 등 여러 의복의 종류에서 흰색 바탕에 다양한 자수 장식과 애플리케 장식을 하여 착용한 형태를 자주 볼 수 있다. 흑색은 모피, 모직 직물이 발달된 디나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어서 아드리아 지역의 귀족 복식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1930년대를 중심으로 남자 허리 벨트인 트카니짜(tkanica)는 흰색, 파란색, 빨간색의 수직 밴드로 구성되어졌는데 이는 현재 국가상징인 크로아티아의 국기에 반영되어 색채에 대한 민족적 감정과 선호를 볼 수 있다<sup>14)</sup><그림9>. 크로아티아 국기에 사용된 세 가지 색상은 슬라브 민족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범슬라브색으로 러시아 제국의 국기 색에서 유래했다. 이 세 가지 색은 자유와 혁명의 상징으로 19세기 범슬라브 운동과정에서부터 사용되었다<sup>15)</sup>.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은 헝가리, 루마니아와 같은 주변 국가의 영향으로 정교한 자수 장식과 애플리케 장식이 많이 발달했다<그림10>. 이는 여자의 루비나와 머리쓰개 및 조끼, 스카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장식은 파노니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파노니아는 린넨, 아마 직물의 흰 바탕에 자연을 주제로 한 자수 장식

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주로 꽃, 나무, 새 등 자연을 주제로 한 장식을 선호하며, 최근까지 이런 이미지들은 크로아티아 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자수 장식에도 앞에서 언급한 색들과 더불어 분홍색, 갈색 등의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다.

## V. 크로아티아의 지역별 복식

### 1. 파노니아 평원 지역

파노니아 평원 지역은 자그레브(Zagreb), 메지무르예(Medimurje), 자고레(Zagorje), 사바(Sava), 드라바(Drava), 슬라보니아(Slavonia), 바라냐(Baranja) 지역을 포함한 곳이다<sup>16)</sup>. 파노니아 크로아티아 인들은 까이 슬라브인들과의 혈연적인 결합을 통해 전형적인 슬라브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파노니아 지역 중에서 특히 바라냐 지역은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의 다양성이 잘 나타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북쪽으로는 헝가리, 동쪽으로는 세르비아를 접하고 있어 크로아티아, 헝가리, 세르비아의 전통이 혼재해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16세기까지 바라냐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의 침략과 거주민의 변동이 있었다. 역사적·정치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민족이 혼재해 있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는 바라냐 지역처럼, 크로아티아의 문화는 민족적인 혼합이 문화의 혼합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문화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개 민족의 문화에 대한 고찰이 아니라, 복합적 문화라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sup>17)</sup>.

파노니아 지역의 민속복식을 살펴보면 남자는 넓은 린넨 바지와 루비나 또는 루바차로 불리는 셔츠를 입는다. 바지는 길이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지역에 따라 바지 밑단에 레이스 장식을 하거나 바지 통 전체에 플리즈 주름을 잡기도 하였다. 슬라보니아 지역에서 루비나는 격식을 차린 의복이고, 쓰링가(slinga)는 흰색 자수, 즈라토베즈(zlatovez)는 금실로 자수가 놓인 것을 말한다. 대개 엉덩이를 덮는 길이



<그림11> 파노니아 지역의 남자복식, Croatian National Costumes, p.81, p.116



<그림13> 파노니아 지역의 여자복식(rubina), Croatian National Costumes, p.36, p.45



<그림12> 파노니아 평원 지역의 여자 복식, CULTURES OF THE WORLD CROATIA, p.54

이고 다양한 자수와 레이스 장식을 한다. 조끼는 검정, 파랑, 빨간색 직물로 만들어지며, 라이백 등의 명칭으로 일컬어진다. 재킷과 코트는 어두운 계열의 색과 모직을 사용하고 화려한 자수가 눈에 띈다<그림11>. 그리고 세 지역 중 유일하게 남자 복식에 에이프런이 나타나고, 담비털, 펠트 등으로 만든 모자, 벨트(tkanica), 어깨 끈 장식(remen), 토시(objjki), 니트로 짠 양말(kopice)를 함께 착용한다.

여자복식에서는<그림12> 하나 이상의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고, 상의로는 짧은 셔츠를 입는다. 셔츠는 레이스, 꽃,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주로 린넨, 수직물을 사용한다. 속치마 위에 입는 드레스나 스커트를 루비나<그림13> 또는 크릴라라 하며 이 전통적인 루비나는 지역에 따라 형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 입혀지는 루비나의

종류와 그 명칭이 다르다. 조끼, 재킷, 코트는 모두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고, 캐시미어로 만든 에이프런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스카프를 즐기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토시, 니트로 짠 양말을 함께 착용한다. 여자의 복식은 자수, 아플리케 등의 장식이 더해져 남자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섬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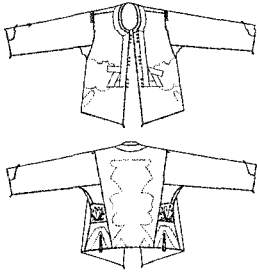
## 2. 디나르 산악 지역

디나르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디나르 크로아티아인은 카르파티아의 원주(原住)크로아티아인, 일리리아인으로부터 받은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나르 지역은 크로아티아의 북서부와 남동부에 이르는 지역이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Montenegro)지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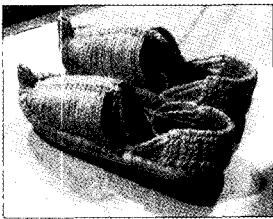


<그림14> 디나르 지역의 남자복식,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32, (2005. 6, Dubrovnik)





<그림15> 디나르 지방 남자 재킷 도식화, Dress in Detail From around the world, p.50



<그림16> 크로아티아 전통 신발 오판찌 (2005. 6, Dubrovnik)

민속의복<그림14>은 셔츠와 바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의 린넨으로 만들어진 셔츠는 넉넉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에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고 땀의 흡수에 용이하다. 또한 재킷<그림15>, 소매 없는 코트, 길이가 긴 형태의 조끼를 입고 셔츠는 더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착용된다. 이들 의복의 특징은 상의에 단추가 없는 대신에 가죽으로 만든 장식용 허리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카파(kapa)라 불리는 붉은 모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



<그림17> 디나르 지역의 여자복식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32, (2005. 6, Dubrovnik)

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디나르의 전통의복에는 투쟁의 역사가 남아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현저하게 화려한 장식품이나 보석류로 치장을 하고 무기를 전통의복과 조화시키는 면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sup>18</sup>.

디나르 지역의 전통적인 의복은 로바(roba)라고 하며,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양모, 모피, 린넨과 가죽이다. 남자들의

끼에 금속 단추 장식을 많이 하는데, 이는 몬테네그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전통 신발인 오판찌(opanci)는 가죽판과 가죽끈을 연결하여 만든다<그림16>.

여자 의복<그림17>은 린넨 또는 대마로 만든 발목까지 오는 셔츠를 입는데, 소매와 가슴 부분에 자수 장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다크(sadak)라고 불리는 조끼를 입는데 다양한 길이이고, 금속 단추와 즈브르크(Zvrk)라고 불리는 문양을 많이 사용한다. 에이프런에도 다양한 자연적인 문양을 이용하여 자수 장식하고, 술 장식 또한 화려하다. 길고 좁은 가죽 벨트인 리타르를 착용하고<그림18>, 다양한 형태의 카피짜라 하는 headgear를 쓴다. 겨울에는 아르지나(aljina)라는 드레스를 셔츠위에 입는데, 소녀들의 드레스는 흰색의 베라짜(bjelača), 기혼 여성들의 드레스는 어두운 파란색의 모드리나(modrina)라고 한다.



<그림18> 리타르 (litar)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36

### 3. 아드리아 해안 지역

원주 크로아티아어인의 민족적 원형을 가장 닮은 아드리아 크로아티아인들은 백크로아티아인들과 지중해 일리리아인이 혼합된 모습이다. 외부와의 상업적인 교류가 많았던 이들은 10세기경 갈색 피부를 가진 슬라브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들의 복식문화는 지중해문화권에 속하면서 해양성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주변 민족들의 원료를 들여와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중해 지역의 유럽스타일을 많이 따르며, 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마다 다른 기본 타입이 나타난다.

이 지역의 남자복식<그림19>은 흰색의 셔츠 위에 파란색 또는 갈색 조끼와 무릎, 발목 정도 길이의 짧고 광대한 바지로 구성된다. 또한 여자들은 실크 위에 화려한 레이스가 장식된 풍성한 흰색 블라우스와 주름 잡힌 스커트를 입는



<그림19> 아드리아 지역의 남자복식, ethnic dress, p.68, Croatian National Costumes, p.172

<그림20> 아드리아 지역의 여자복식 (2005. 6, Dubrovnik)

다. 이스트리아 지역의 남성들은 흰색 린넨으로 만든 바지와 가죽조끼, 소매가 없는 코트를 입는다. 또한 알파인(Alpine) 지역과 남쪽 프리모쵸(Primorje) 지역에는 터키와 오리엔탈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형태의 복식이 나타난다. 이 영

향으로 이스트리아 지역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바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셔츠의 절개부분에서는 중세부터 나타나는 슬라브 문화와 프리올리(Friuli)지방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이스트리아 지역에서 여자 의복<그림20>

<표2> 크로아티아 남자 복식의 특징

지역		파 노 니 아	디 나 르	아 드 리 아
복식	색	검정, 흰색	검정, 흰색	검정, 흰색, 파란색
	소재	린넨, 아마, 수직물	린넨, 모직, 수직물	린넨, 실크
	형태	통이 넓은 편, 플리츠	보통 형태의 남자 바지	무릎, 발목 길이
	장식	바지단의 레이스 장식	자수	
셔츠 (rubaca)	색	검정, 흰색	흰색	흰색
	소재	린넨, 아마, 수직물	린넨, 울, 수직물	린넨, 실크
	형태	통이 넓은 편, 바지 위에 엉덩이길이	엉덩이길이	셔츠를 바지안에 넣어 입어 길이를 알 수 없음.
	장식	다양한 자수장식과 레이스		
베스트 (lajbek)	색	검정, 빨간색, 파란색	검정, 빨간색	검정, 파란색
	소재	린넨, 아마, 수직물	모직	실크
	형태	길이가 짧음	엉덩이까지 내려옴	길이가 짧음
	장식	금속 장식, 금색 자수, 실크 자수	은 금속 장식	금속장식
재킷 (surka)	색	아이보리, 검정, 염색한 갈색, 파란색	검정, 갈색	검정, 갈색
	소재	모직	모피, 모직, 어두운 수직물	모직, 실크
코트 (srdoba)	형태	짧은 길이, 반코트의 형태	반코트 형태, 길이가 다양함	반코트 형태, 소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음
	장식	화려한 자수	화려한 자수와 술 장식	다양한 명칭이 존재

은 상의는 오프레체(opleće)로, 하의는 크릴라라고 한다.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지역의 복식의 특징은 남성이 입는 조끼와 바지에 금장식을 하고, 여자 복식에는 화려한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을 한다는 것이다<그림21>. 초기 달마티아카 유형의 셔츠는 넓은 소매와 컬러풀한 실크 자수로 장식되어 있고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자다르(Zadar)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림21> 아드리아 지역의 귀족 복식 (2005. 6, Dubrovnik)

위의 세 지역의 남자, 여자 복식의 색, 소재, 형태, 장식의 특징을 정리하여 <표2>와 <표3>으로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크로아티아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남자, 여자 복식의 각 의복에서 색, 소재, 형태, 장식의 특징을 정리해 본 결과 남자 복식에서는 주로 흰색의 린넨, 수직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셔츠는 품이 넓은 형태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입는 방법에 선 차이를 보인다. 인상적인 것은 파노니아 지역에서만 에이프런을 착용하고 있고 디나르 지역에서는 무기가 장식구화 되었다는 것이다. 아드리아 지역은 다른 두 지역과는 달리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고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 의복 형태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복식에서는 긴 플레어스커트를 세 지역에서 모두 착용하며 남자 복식보다 그 문양이나 색의 사용이 다채롭다. 그리고 특히 아드리아 지역에서 나머지 두 지역과는 다른 형태와 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세 지역의 복식의 특징을 간단히 정

<표3> 크로아티아 여자복식

지역		파 노 니 아	디 나 르	아 드 리 아
복식	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	검정, 빨간색	분홍, 빨간색 등 다양한 색 사용, 파란색을 많이 사용
	소재	린넨, 아마, 수직물	린넨, 모직, 수직물	실크
	형태	플레어, 폴리츠	플레어, 주름	플레어
스커트 (rubina)	장식	화려한 자수, 꽃 문양, 새 문양	화려한 자수문양의 에이프런 착용	어깨부터 내려오는 화려한 문양의 에이프런 착용(디나르와 비슷)
	색	흰색	흰색	검정, 흰색
	소재	린넨, 아마, 수직물	린넨, 수직물, 울	실크, 울, 수직물
셔츠 (oplećak)	형태	품이 넓은 편	품이 넓은 편, 다양한 길이	품이 넓은 편, 넓은 소매
	장식	자수장식, 레이스 꽃 장식	레이스, 작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자수 장식	레이스, 다양한 색의 실크자수
	색	검정, 흰색	검정	
베스트 (lajbek)	소재	모직, 수직물, 모피, 가죽	모직	
	형태	짧은 길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함	
	장식	화려한 자수, 술 장식	자수장식, 금장식	
재킷 (rekljec)	색	검정,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		검정,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
	소재	벨벳, 모직, 실크		실크, 모직, 질이 좋은 수직물
코트 (zobun)	형태	허리에서 벨트로 조여 주는 형태		
	기타	화려한 문양, 자수장식		

리하면, 파노니아 지역은 화려한 색과 문양, 자수장식과 플리츠가 잡힌 남자 바지가 특징적이었다, 디나르 지역은 금속장식과 술 장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드리아 지역은 무역을 통한 실크 소재와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크로아티아의 각 지역 민속복식은 민족적 기원과 침략의 역사가 복식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는 소재와 색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 지역의 복식문화는 각 지역이 접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복식문화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VI. 결 언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세 지역의 복식은 기본 구조는 같지만, 소재, 색, 디테일, 형태와 착장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이 전통적인 남슬라브 민족의 옛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타 국가의 침략과 문화접변에 의한 문화의 유입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6~7세기의 슬라브 민족이동에서 분리된 이동지역에 따라 디나르 크로아티아인, 아드리아 크로아티아인, 파노니아 크로아티아인으로 나뉘게 된다. 또한 세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 크로아티아의 민속복식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 변화되어 왔다. 아드리아 지방의 서유럽 스타일의 여자의복들은 주변 문화접변으로 이탈리아 복식의 유입을 보여주며, 디나르 남자복식은 크로아티아의 전쟁과 침략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지역의 복식이 각각 크로아티아의 역사, 자연환경,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근대 민속복식의 정착과정을 근거하여 현재 자그레브를 중심으로 한 파노니아 평원지역의 복식이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민속복식의 형태라고 파악되어진다. 따라서 크로아

티아의 민속복식의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파노니아 지역의 복식을 남슬라브 민속복식의 기본형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발칸 반도의 복잡하고 얽힌 역사만큼 크로아티아의 민속복식 또한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와 모습과 명칭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로아티아 민속복식은 발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동·서 슬라브 민속복식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남슬라브 민속복식의 고찰에 관한 하나의 기초 자료로 설정하고자 한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위 세 지역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위하여 자세한 현지 자료의 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박춘순, 조우현 (2002). *중국 소수민족 복식*. 서울: 민속원, p.4.
- 2)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으로 구성된 지역을 일컫는데,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지정학적 위치, 종교 문화적 개념, 역사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과거 냉전 시대의 동유럽 발칸지역으로 국한함을 밝혀 둔다.
- 3) 김철민 (2005). *발칸유럽의 사회와 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65-67.
- 4) 권혁재 (2003). 크로아티아 전통 의상에 나타난 민족적 다양성 연구. *한국 동유럽 발칸학회 동유럽발칸학* 5, p.388.
- 5) Ibid., pp.389-390.
- 6) 권혁재 (2003). Op. cit., p.393.
- 7) Tito, Josip Broz. 1892.5.7-1980.5.4.
- 8) Tadjman, Franjo. 1922~1999.12.10.
- 9) Robert Cooper (2001). *CULTURES OF THE WORLD CROATIA*. MARSHALL CAVENDISH, p.54.

- 10) Elizabeth B. Hurlock, *임숙자 외 공 (2000). 의복의 심리학- 유행과 그 동기의 분석*. 서울: 교문사, pp.99-100.
- 11) 최수빈, 조우현 (2004), 우크라이나 민족복식의 조형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2), p.168.
- 12) 권혁재 (2003). *Op. cit.*, p.399.
- 13) *Ibid.*, p.389.
- 14) Ivica Ivanković, Vladimir Šimunić (2001). *Croatian National Costumes*. multigraf, p.15.
- 15) 자료 검색일. 2006년 10월 28일.  
<http://panslaviccolors.quickseek.com>
- 16) Ivica Ivanković, Vladimir Šimunić (2001). *Op. cit.*, p.15.
- 17) 권혁재 (2003). *Op. cit.*, p.398.
- 18) *Ibid.*, pp.401-402.
- 19) Ivica Ivanković, Vladimir Šimunić (2001). *Op. cit.*, p.149.
- 20) 권혁재 (2001). *크로아티아어 회화*. 서울: 문예림.
- 21) 김문영, 조우현 (2002). 리투아니아 민속복식의 고찰. *복식* 52(7), pp.27-44.
- 22) Radovane Ivančević (1993). *Art Treasures of Croatia*. ITP MOTOVUN-Zagreb.